

2020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 처음 열어보는 부산고고회의 흔적

UNBOXING, the Traces of  
Busan Archaeological Society

11.10.TUE - 12.27.SUN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The Korea Association of University Museums

운영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SEOKDANG MUSEUM OF DONG A UNIVERSITY



부산대학교박물관

Busan National University Museum



경상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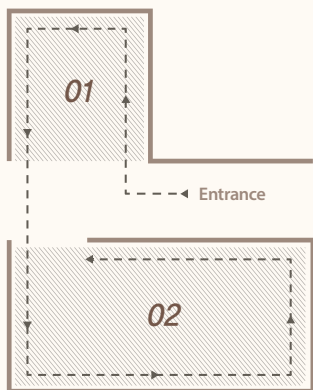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

총     괄   김기수  
기     획   진승현 임은혜  
진     행   박창열 지강이 진승현 임은혜 김형철  
사     진   전호선  
행 정 지 원   김승희  
전 시 시 공   시선디자인커뮤니케이션  
자료제공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

## 전시실 안내



**01**

부산고고회의 설립 및 활동

**02**

부산고고회의 패총 조사와 그 이후의 연구

---

모든 일정은 COVID-19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museum.donga.ac.kr/museum/index.do>

# 처음 열어보는 부산고고회의 흔적

UNBOXING, the Traces of  
Busan Archaeological Society

## 전시를 열며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은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활동하였던 부산고고회가 수집한 유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시는 부산고고회의 패총 발견 및 수습 조사의 흔적을 따라 진행되며,  
광복 이후 우리의 발굴 및 연구 성과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부산고고회는 1930-194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일본인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의 모임으로, 동삼동패총(사적 제266호)\영선동패총 등  
부산 지역의 패총을 발견하고 수습 조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도의 고적조사에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선사원사시대 패총을 조사한 부산고고회의 자료는  
우리나라 패총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전시를 통해 부산 지역 패총에 대한 지난 세대의 성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패총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01

## 부산고고회의 설립 및 활동

부산고고회는 1931년에 설립되어 1940년대 초반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일본인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교사·의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던 20여 명이 모여 시작한 이 모임은 고고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적 취미와 부산 지역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 02

## 부산고고회의 패총 조사와 그 이후의 연구

부산고고회 회원들은 부산고고회 설립 이전인 1920년대부터 부산과 그 주변의 유적 조사 및 유물 수집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927년 낙민동패총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패총이 파괴되고 유물이 노출되자 이를 수습 조사한 것이 활동의 시작점입니다.

이후 회원들의 연구 및 수습 조사는 부산고고회가 설립된 1931년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32년 8월 28일에는 부산고고회 설립 1주년 기념사업으로 동삼동패총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33년 영선동패총을 조사하다 '토기 윙기문 발'(보물 제597호)을 발견하고 수집하였습니다. 간단한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에 그쳤던 부산 지역 패총 연구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손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석기시대

- ① 영선동패총
- ② 청학동패총
- ③ 동삼동패총
- ④ 다대포패총

삼한·삼국시대

- ⑤ 김해 회현리패총
- ⑥ 낙민동유적과 동래패총
- ⑦ 전포동패총
- ⑧ 괴정동패총

1927



발견 낙민동패총

1929



수습 낙민동패총  
전포동패총 괴정동패총  
동삼동패총 영선동패총

1932



발굴 동삼동패총

1933



수습 영선동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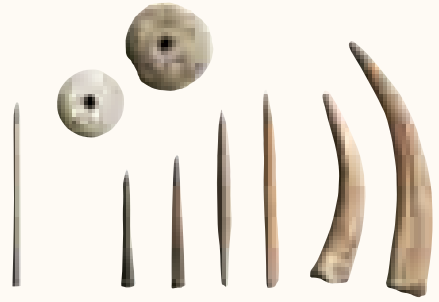
1934-5



수습 김해 회현리패총  
다대포 패총

## 낙민동유적과 동래패총

낙민동유적은 1927년, 동래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오이카와 타미지로 及川民次郎에 의해 발견된 삼한-삼국시대 유적입니다. 1929년 부산고고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지 약 40년 후인 1967-70년 국립중앙박물관이 1-4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낙민동 일대 서쪽은 패총 유적이며, 동쪽은 철 생산 유구가 중심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0년 이후의 조사를 통해, 이 패총이 낙민동과 수안동 일대 광범위하게 분포한 복합 유적이 밝혀졌습니다. 이 복합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다량의 토기·골각기·동물 유체가 있습니다.



낙민동유적과 동래패총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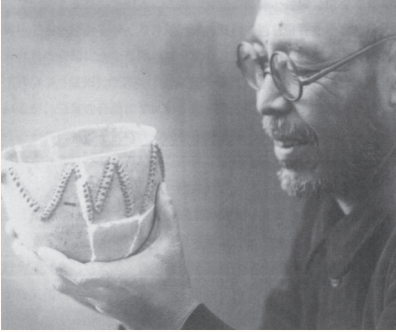
## 동삼동패총



동삼동패총 출토 유물

동삼동패총은 1929년 부산고고회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2015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산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 의하여 10여 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패총으로서 규모가 가장 크며, 신석기시대 전시기에 걸친 문화층이 겹쳐 형성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각 문화층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빗살무늬토기와 석기, 골각기 등을 비롯하여 당시 일본 규슈 지역과의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흑요석제 석기와 조몬 토기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 영선동패총



토기 용기문 발을 들고 있는 오마가리 요시타로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에 있던 신석기시대 전기의 패총입니다. 1930년 부산고고회 회원 요코야마 쇼사부로(横山將三郎), 1933년 오마가리 요시타로(大曲美太郎)와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에 의해 수습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도로공사와 주택 개발로 인해 완전히 소멸되어 위치나 규모를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토 유물은 완형으로 수습된 '토기 용기문 발'(보물 제597호)을 비롯하여 토기, 석기, 골각기 등 다양합니다.



## 김해 회현리패총

김해 회현리패총은 1907년 일본인 사학자 이마니시 류(西園)에 의해 처음 발견된 청동기-삼국시대 패총입니다. 1934년 우연히 옹관이 발견되어 부산고고회 회원인 가야모토 노리토(樺本杜人)에 의해 수습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여 일제강점기 총 8차례, 광복 이후에 20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다량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불에 탄 볍씨, 중국의 화폐인 화천, 야요이식 독널, 다량의 골각기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김해 회현리패총 출토 제1호 옹관



## 처음 열어보는 부산고고회의 흔적

UNBOXING, the Traces of Busan Archaeological Society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Tel.051.200.8493 Fax.051.200.8498

전시기간 2020.11.10.~2020.12.27.  
관람시간 화-일, 오전 9시 30분-17시  
휴관일 법정공휴일, 월요일